

挺身隊 여성 臺灣에 생존

13 16세대 8월 2년간 수모 겪어

來韓 대만인 밝혀
「정신대」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10, 11일 이틀간 열린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차 서울에 온 臺灣 타이베이 부근 조상암기독교집행장 천더링(陳美鈴)씨가 臺灣에도 韓國人 정신대여성 1명의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 <관련화보 9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씨가 전한 바에 따르면 16세대 臺灣에 끌려와 日本軍을 상대로 위안부 생활을 했던 盧丙子(73)가 현재 臺灣 북부 페이토시에 살고 있으며 가족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盧씨는 한국말을 겨우 알아듣는 정도이며 고향이 어디인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장사를 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盧性寬, 어머니는 林外非였으며 남동생 2명이 있는 것으로 기억했다. 盧씨는 밝혔다. 盧씨는 16세대 「재민」에 빠져 臺灣으로 왔으나 盧壽福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중국정부와 부출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자로는 泰國의 盧壽福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挺身隊 문제

피해 6개國 공동 대처

日帝의 「정신대」만행에 대한 아시아·피해국간의 국제적 연대가 구체화됐다. <화보 9면>
韓國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李純金)는 한 국인 여성정신대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키로 함대이며 10일부터 이틀동안 서울수출로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아시아여성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日本·필리핀·臺灣 등 6개국 30여명의 여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를 열었다. 정신대문제는 지난해

오늘 亞洲 여성대표 연대회의 개최

12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여성인권위원회에서 회생자 3명의 사례가 발표되면서 각국의 관심이 높아졌고 올해들어 필리핀·臺灣에서 피해자가 보고돼 피해당사 국가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신대에 관한 첫 국제회의인 이번 회의는 이같은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주최측은 취지문에서 과거 日本이 저지른 범죄인 정신대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규명과 공식적

배상금, 아시아의 평화 등을 위한 日本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해 연대를 모색하게 됐다. 고 밝혔다.

比·臺灣 등 피해 사례 속속 발견 證言자료 모아 對日賠償 추구

회의는 첫날 한국측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발표와 日本측의 「日本에서의 정신대문제」를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필리핀을 대표한 4개국의 발표와 토론, 결의문 채택 등 회생자 2명의 증언

회의는 첫날 한국측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발표와 日本측의 「日本에서의 정신대문제」를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필리핀을 대표한 4개국의 발표와 토론, 결의문 채택 등 회생자 2명의 증언

회의는 첫날 한국측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발표와 日本측의 「日本에서의 정신대문제」를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필리핀을 대표한 4개국의 발표와 토론, 결의문 채택 등 회생자 2명의 증언

회의는 첫날 한국측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발표와 日本측의 「日本에서의 정신대문제」를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필리핀을 대표한 4개국의 발표와 토론, 결의문 채택 등 회생자 2명의 증언

회의는 첫날 한국측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발표와 日本측의 「日本에서의 정신대문제」를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필리핀을 대표한 4개국의 발표와 토론, 결의문 채택 등 회생자 2명의 증언

회의는 첫날 한국측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발표와 日本측의 「日本에서의 정신대문제」를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필리핀을 대표한 4개국의 발표와 토론, 결의문 채택 등 회생자 2명의 증언